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아이들의 여름이 역대 최악의 무더위와 함께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나의 유년 시절 여름방학은 즐거웠다. 피서길 원두막에서 먹었던 수박은 아주 달고 시원했으며, 어머니를 따라 시장 혹은 박물관이나 극장 등을 다녔던 경험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컴퓨터 핸드폰이 없었던 그때에는 모든 곳이 놀이터가 되었다. 여름방학이란 그저 맘을 흠뻑 흘리며 신나게 웃고 떠들며 노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2021년 여름,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마땅치 않다. 당연한 듯 군보다는 시가, 광역시보다는 특별시에 더 많은 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나마 찾은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는 6세에서 10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다.

분명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부터 참여 가능한 방학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조차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달리

문화자본을 굴리는 방학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문화 불평등’을 실제로 맞닥뜨리는 것은 편지 않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그 원인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칙처럼 방학에도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한국의 학업 경쟁사회 때문인 듯하다.

한국의 학부모는 방학에도 아이들의 사교육으로 힘들다. 물론 유럽의 부모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다만 그들이 아이들에게 각별히 신경 쓰는 방학 교육의 내용이 우리와는 다를을 이야기하고 싶다. 독일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앞서 언급한 문화자본을 길러 주기 위해 심사 숙고한다. 이는 비단 각 가정의 부모 뿐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지역사회의 모두가 함께 고민한다. 같은 시대와 사회에 속하는 아이들에게 그들 삶에 중요한 밑거름은 부족한 학업의 학습이 아니라 ‘문화 자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는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자본 사회에서 문화 취향에 의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계급이 정해지는지 설명한다. 부르디외가 만든 개념인 ‘아비투스’(Habitus)는 개인의 무의식적인 행동 습관인데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취향은 단순하지 않은 교육과 전수를 통해 상속되어진다. 그는 교육 행위를 통해 생산된 문화적 유전자인 아비투스가 문화자본으로 그리고 사회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불평등한 문화 분배 등의 복잡한 문제를 비

집고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교육에 의해 아비투스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화자본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여름방학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2014년 향후 10년간의 방학 일정을 발표하였다.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각 주 문화부장관들이 한데 모여 주 형편에 맞는 서로 다른 방학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함께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동안 관광·문화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각 가정의 방학 계획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학교는 가족이 함께 여행이나 전시 그리고 공연을 경험할 것을 권장하고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학부모에게 당부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방학 여행을 즉흥적으로 계획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 누구를 만날 것인지 방문과 초대 일정까지도 치밀하게 준비한다.

공리 끝에 가족의 방학계획표를 완성했다. 계획대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조금만 마음으로 아들을 다시 채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와 눈을 마주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의 취향을 만들어 가는데 방학만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 한 가족의 문화자본은 얼마든지 가족의 전통이 되며 저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없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개인의 문화자본 토대를 육성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연대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 고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섬, 섬이 되다’를 주제로 경남 통영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행사는 2018년 세계 최초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고, 2019년 목표에서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열린 지 2년 만에 열린 뜻깊은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지자체별 전시관 등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었다.

8월 8일 섬의 날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특별히 이날이 섬의 날로 지정된 이유는 국민이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여름 휴가철 특성상 섬 관광 활성화에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으로는 영토로서의 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섬의 고장, 전남에서 돌아보는 ‘섬의 날’

데다 관광·생태·문화 자원 등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무한대(8=∞)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섬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섬은 찾아가기 힘들고, 고립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은 날씨가 궂으면 운항하지 못하고, 정주 여건은 좋지 않아 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섬의 날은 태풍과 바람,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섬을 지켜 낸 섬 주민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다.

전라남도에는 2165개의 섬을 품고 있는 섬의 고장으로 이날이 더욱 뜻깊다. 전남도는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든 주목하지 않았던 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여 ‘제1회 섬의 날 행사’ ‘서남해안 섬 포럼’ 등을 개최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섬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국립 한국섬진흥원을 목표로 유지하였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섬 재생 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8개의 섬이 선정되어 주민과 함께 섬 고유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되살리며, 10개의 섬이 각각의 특색 있는 주제로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다.

여수의 낭도와 손죽도, 고흥 연흥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와 생일도, 진도 관매도, 신안의 반월·박지도와 기점·소악도는 주민과 여행자들이 공존하는 생태 여행지로, 각광받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교통취약 지역인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0원 여객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섬 주민들이 1000원만 부담하면 여객선 생활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5만 여명의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유의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이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 섬, 해양산업과 관광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민들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남도에게는 더욱 뜻깊은 섬의 날. 섬 주민에게도, 섬을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 모두에게도 축제의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기 고



이창현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내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지방선거(6월 1일)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선 예비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지지율과 적합도 등 그 결과가 연일 보도되면서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 동안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무려 100개에 이를 정도로 많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공식적 절차와 방법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과 과정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기의 의사와 추구하는 이익 및 관심을 정치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는 활발한 대의제와 다수의 정당제,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및 여론 표

출과 다양한 매스 미디어 등의 존재와 활동을 최대로 보장하는 체제이다. 특히, 현대 민주국가의 국민은 국가와 지역, 집단과 개인의 영역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모습을 보인다.

선거와 투표 행위는 정치 참여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는 여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흔히 민주주의를 여론 정치라고 일컬을 만큼 여론은 현대 정치의 근간이 되어 있다.

여론이란 사회 내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어떤 대상들에 대해 갖게 되는 집단적인 의식이나 견해 및 관점들의 복합체라고 규정된다.

여론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데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형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선거에서 선거구 및 유권자의 특성과 투표 행태 그리고 관심·이해·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선거 전략을 수립, 집행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적인 기법에 따른 여론조사이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는 정치·경제·사회·복지·지역 문제 등 여러 분

야에 대한 유권자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게 하고, 정치인과 정당이 필요한 정책과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잘못되고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가 이뤄져 그 결과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과 선택을 그르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등 매우 부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여론조사의 양면성 등에 유의하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정권도 부여하여 선거 여론조사 및 결과의 공표·보도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선거는 이기느냐, 지느냐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잘못되고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는 국가사회에 많은 폐단과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치인과 정당, 매스컴과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의 철저한 준법과 국가사회에 대한 투철한 책임 의식 및 사명감이 요구되고, 강조되는 이유다.

社說

차량 천지 총장로 ‘견고 싶은 거리’ 무색하다

문화 도시 광주의 구도심을 대표하는 변화가이자 상업지구인 총장로가 불법 통행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차량 진입이 금지되었지만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상권 이미지를 흐리고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로 1가에서 5가에 이르는 895m 구간은 지난 1996년부터 차량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상품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2t 미만의 차량에 한해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쇼핑과 문화생활을 위해 즐겨 찾는 이 일대는 걸핏하면 불법 주차 및 무단 통행 차량들과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다. 올 들어 경찰의 범칙금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단속의 손길도 전혀 미치지 않

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엔 열기를 뿜어 대며 경적까지 울리며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쾌지수는 더욱 치솟는다.

총장로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견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광주시 동구도 팔짱을 끼고만 있기는 마찬가지다. 상인들의 민원을 의식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총장로는 보행보다는 차량 통행이 우선시되고, 불법 주차차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물론 이처럼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혼자만의 편의를 위해 진입이 금지된 거리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양체 운전자들의 무책임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차량 통행을 이대로 방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상권 활성화 또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체에 상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로를 ‘차 없는 명품 거리’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

목포산단 20년, 주민들 소음·분진에 시달린다

목포 지역에 있는 삼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분진과 소음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 산단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환경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정농공단지는 지난 1991년 조성됐고 삼진산단은 2000년에 준공됐는데 이 두 단지에는 조선소를 비롯해 현재 총14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최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목포시 삼진산단단지·산정농공단지 주변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산단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 등 153명(남자 133명, 여자 20명)을 상대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공단 주변 환경 상태에 대해 31.4%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43.8%는 ‘어느 정도 심

각하다’고 답하는 등 열 명 중 여덟 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산단 주변 환경 문제로 응답자의 84.3%가 먼지(분진)의 심각성을 지적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쇳가루가 많다(76.5%), 페인트 냄새가 심하다(73.9%), 소음이 심하다(73.9%)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노동계는 삼진산단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정비도 없이 방치된 데다 여기에 산단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목포시는 삼진산단단지와 산정농공단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차체에 목포시는 환경오염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간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분위기다. 바지 발인, 백제 발인, 영남 역사별 발인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친인척 특혜 의혹에 이어 음주운전 전력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승부인 만큼 적의 치명적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앞서가는 경쟁자의 발목을 잡고 뒤처진 경쟁자를 끌어잡으려

적전 분열

고들 믿기 때문이다. 그 래서 경선 후보들은 때로 ‘과열 경쟁 자체를 약속했지만 잘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의 치열한 공방이 ‘집안 싸움’인 데다 ‘적전 분열’이라는 점이다.

국내 정치판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책사이자 김메이커인 김종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서울시 장 보결 선거에서) LH사태가 없어도 이겼다. LH사태가 민심을 자극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선거판을 좌우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이 잘난 게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게 야당이 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게 야당’이라는 발언은 김 전 위원장이 흔히 쓰는 이야기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여당이 잘하기만 하면 야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실질적인 정치 현실이 그렇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분경선이 열리는 10월10일까지는 딱 2개월,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는 정확히 7개월이 남아 있다. 끝내 하려고만 한다면, 서로 약점을 들추고 드잡이를 하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다. 하지만 민주당 분경선 1개월 뒤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면 곧바로 진보·보수 진영 간 정권의 명운을 건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본선은 같은 편끼리 겨루는 당내 경선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진검승부를 앞두고 미리 상대방에게 내부 약점을 알려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후보들은 과연 지금 ‘여당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